## 안승준, 엄옥희선교사 5월 우간다 선교소식 May 2019 No. 49

UGANDAN MISSION NEWS by Missionaries Luke S. Ahn, D. Miss. & OkHee Ahn

만남은 천국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뵙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배드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 안에 명시된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의 세계에서 주어진 최고의 기쁨과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5월 초부터 3주간 미국을 방문해서 가졌던 여러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은 저와 엄 선교사 모두에게 큰 축복과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선하신 주님께서 딸 영주도 버클리에서 public health 대학원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Oscar 청년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식 위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을 맡고 계신 대학 선배도 되시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정현 목사님을 뵐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점심을 대접해 주신 부페 횟집에서 회 요리를 원 없이 먹을 수

The Light & Salt Church



있었습니다. 10 일(금요일) 후원교회인 성화장로교회 금요기도회에서는 선교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하시는 이동진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방문할 때마다 LA 지역의 비장의 무기(?)들을 선보여 주셨는데 이번에는 붕어빵으로 큰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내 처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저희에게 거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늘 선대해 주었습니다. 큰 처제는 우간다로 돌아갈 언니 엄 선교사에게 여러 선물들을 사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12 일 주일에는 다른 후원교회인 San Diego 반석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우간다 선교보고를 하고 담임하시는 최동진 목사님과 후원하는 우간다 목장 성도들과도 만나 기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4 일 화요일에는 Irvine 에 소재한 벧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30 년 전 필라델피아의 Westminster 신학교 시절을 추억하는



감회와 교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7 일 금요일 아침에는 종종 우간다선교를 후원하시기도 했던

엄 선교사의 대학 과 동기인 양정숙 집사님과 남편 박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즐겁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두 집사님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며 저희는 Los Angeles 에서 San Francisco 까지 약 400 마일을 렌트 차로 달렸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둘째 덕주가 올 상반기부터 LA 남쪽 지역에 정착하며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만족하며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막내 찬주가 18 일 토요일 밤에 San Francisco 에 도착함으로 저희 가정의 family reunion 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도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찬주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결혼하는 누나를 위해 선물과 축의금까지 준비한 막내의 모습 속에 이제는 부쩍 장성한 막내 찬주의 모습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19 일 주일 오후에는 영주가 출석하던 교회에 나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버클리 캠퍼스 인근의 학생 교회였는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한국 목사님과 수 백명의 젊은 한국, 중국, 아시아계 학생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미국의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20 일 월요일 오전은 영주의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장으로 서둘러 출발하였습니다. 조금 서늘하기는 했지만 며칠 뿌리던 비가 멎고 햇빛도 나서 졸업식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기마다 5-6 개씩 코스웍을 할 때마다 영주보다 제 가슴이 조려 왔었는데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 가족과 영주 친구들은 신랑될 Oscar 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의 시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곳에서 결혼식을 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신랑 부모님들과 형과 여동생이 온 것이었습니다. 본래 예정은 이번에 법정 결혼식을 하고 예식은 11월이나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뜻밖에 신랑 가족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결혼식은 제가 주례를 하고 양가 부모와 친구들 입회 하에 은혜스럽게 치루어졌습니다. 21일 아침 가족이 이번 만남의 끝날 모여 함께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막내가 가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울먹여서 온 가족의 눈을 적시기도 헸습니다. 찬주는 학교로 돌아갔고 덕주는 오후 비행기로 가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오후에 신랑이 예약해 놓은 Alaska 를 향해 honeymoon 을 떠났습니다.

21 일 저녁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터기의 이스탄불에 도착하니 22 일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다시 르완다를 거쳐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니 23 일 새벽 3:30 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다음 날 있게 될 졸업식 점검 차 학교로 갔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졸업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사 준비가 완료되고 23 회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의 졸업식이 24 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신학과와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 총 47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빡빡한 일정들, 딸의 결혼식까지 어떻게 치를 수 있었는지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들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요충지 우간다에서 안승준, 엄옥희 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 되는 삶 위해. Pray that Christ would dwell within us in His fullness and be testified through us as we live in Christ.
- 우간다 교회가 우간다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ray that Ugandan churches would change Uganda and be the center of world mission.
- 3.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학과 학위 과정 인가 위해.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RTC and accreditation as a BA degree awarding school.
- 4. RTC 교장의 업무 수행 잘 감당하고 강력한 말씀 증거 통해 학생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도록. For doing the best in assuming the responsibility as principal of RTC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powerfully that the worldviews of students at RTC can be transformed to be witnesses of Christ.
- 5. 자녀들(영주, 덕주, 찬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전할 수 있도록(영주의 결혼생활과 직장생활, 덕주의 새 직장 생활, 찬주의 박사 과정 학업과 연구활동),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 관리를 해 주시는 안 선교사의 부모님과 미국에 계신 엄선교사의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Pray that Christie, Timothy, and John may serve Christ in close relationship with Him and make Christ known through them. Pray for Christie's new family and work, Timothy's new work, and John's study and research at Ph.D. program and for the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parents in S. Korea and in the U. S.
- 6. 선교 지에서의 운전 중의 안전과 주변의 정세로부터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For the safety in driving and political and social surroundings
- 7. 엄 선교사의 RTC 학교사역과 Online MA-TESOL 과정 위해. For missionary Um's English teaching ministry at RTC and Online MA-TESOL Program.